

##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

1. 구술일자: 2001년 11월 21일
2. 구술장소: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
3. 구술분량: 10분 25초 / 일부 공개
4. 주요내용: 부끄러운 학창시절의 기억

어릴 때 어머니 주머니를 뒤진다든지, 장롱을 뒤져서 돈을 살짝살짝 훔쳤던 그런 기억은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별로 지우고 싶진 않아요.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소중한 성장과정으로, 어떤 의미에선 내 댄엔 소중한 성장과정으로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되고 지워버리고 싶진 않거든요. 학교 갔을 때 책값 계산서를 위조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낸다든지, 헌책을 팔아가지고 책값을 속여서 어머니를 속여먹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지나고 보면 다 뭐 그런 거죠. 하나의 성장과정으로.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했던 과정, 어떻게 어떤 계기로 해서 그런 걸 뛰어넘게 된 과정 같은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고.

내가 몇 번, 참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하는 것이 약한, 아주 약한 모습을 보였던 때. 고등학교 처음에 이제, 고등학교에 처음으로... 학교를 다녔는데 하여튼 임기응변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건 다 괜찮습니다. 그런 건 다 그냥 거짓말하고 그런 건 별거 아닌 것으로, 다 어릴 때 한 번씩 그래보는 것으로써 그냥. 고등학교 처음으로 부모 슬하를 떠나서 부산으로 유학을 했던 말이죠. 부산 가서 있는 동안에 하숙비를 낼 형편은 잘 안되고. 자취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무척 힘들었어요. 무엇보다도 불안[했습니다]. 가정교사도 하고 밤중에 가게 경비, 말하자면 남의 가게를 밤에 지켜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자취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와중에 힘이 들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니까. 제일 문제가 숙식의 문제였습니다. 숙식의 문제가 항상, 항상 불안스러우니까 새로운 숙식방법을 찾는데 그건 잘 안정되지 않고. 또 현재의 숙식도 돈을 계속 댈 수가, 자취도 계속 돈을... '부모님들이 계속 돈을 대줄 수 있을까'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교사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잘 안되고. 그러니까 쌀값, 방값을 계속... 자취라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, 숙식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불안 같은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.

근데 부모님들은 그 당시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, 아주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내 학비 대느라 하여튼 일구월심(日久月深) 지나 깨나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. 모든 걱

정이 딱 하나 내 학비 대는 것이 걱정이었죠.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부모님 사정도 모르고 부모님이 은근히 원망스러웠죠. 현실적으로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은 태풍이 부는 날 우산이 확 뒤집어지고, 옷을 다 버리고, 비를 쫓닥 맞고 학교 가고 그러고 이제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서 며칠 고통스러웠어요. 그런 사정을 집에 편지를 썼어요.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가면서 ‘이 넓은 부산에 송곳 하나 세울 곳이 없습니다. 나를 위해서 송곳 하나 꽃을 땅이 없습니다’ 뭐 이런 취지. ‘공부를 꼭 해야 하는 것이냐. 그만두고 싶다’ 이런 편지를 집에 [계신] 어머니한테 썼어요.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아버지, 어머니 오히려 안심시키고 위로해드려야 될 나이인데 내 [처지가] 어렵다고 그 편지를 썼던 것이, 그것이 두고두고 부끄럽고 괴로운 일로 남아있는데.

더, 더 난감한 것은 그 뒤 내가 이제 이런저런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? 고시에 합격도 하고, 변호사도 되고, 국회의원도 되고 이러니까 어머니는 그때 그 편지가 머리에, 기억이 남아가지고 지난날, 말하자면 내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자꾸 들먹이는 겁니다. ‘이 자식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’ 그 말이에요. 아마 국회의원이 되고난 뒤, 청문회 하고난 뒤에도 기자가 취재하러 갔을 때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. 사실은 그때 내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고,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, 감당을 못해갖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. 불안감을 감당 못해서 썼던 거예요. ‘아, 내가 그때 부모님들 그렇게 괴롭혀드렸구나’ 생각하니까 [부끄럽지요]. 그걸 어머니는 자랑이라고, ‘이놈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다’ 고 자랑이라고 하시면 나는 죽을 맛이예요.

어머니가 항상 날 곤란하게 하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하고, [다른] 하나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취로사업을 나가셨었어요. 취로사업 나가면 그때 밀가루를 줬어요.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‘밀가루 대통령’ 이 됐는데, 1963년도 대통령선거 했던 그때 고 조금 전이지요. 중학교 내가 3학년 때쯤이면 1961, 1962년 이때입니다. 취로사업으로 밀가루가 많이 나왔어요. 취로사업을 나가셨는데. 내 또래 친구들은 지게 지고 농사일로 어쩔든 집안 살림을 다 도왔지요. 나는 학교를 다니니까 아버지한테 참 미안한 거죠. 나도 뭔가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품팔이를 하든지 월 해서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데, 나는 학교를 또박또박 갔다 왔다하니까 죄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었어요. 그러니까 가끔 책가방 안에 모자를 이렇게 숨겨 다니게, 중학교 다니면서 학생 모자를 책가방 안에 숨겨가지고 마을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고.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‘저 집은 형편도 안 되는데 아(자식)들 공부는 지독스럽게 시킨다’ 라는 말

이 있었어요. ‘큰아들 공부시켜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, 실업자고 재미도 못 받았으면서 아(자식)들 공부는 지독스럽게 시키려고 하데?’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둘 있었어요.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내가 무슨 큰 죄나 짓는 것처럼 모자를 숨겨 다니고 [그랬지요].

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내가 ‘학교 가기 미안하고 부끄럽다’ 라는 말을 어머니한테 한 번 했는데, 어머니는 그것도 가슴에 못이 배겼더라고요. 못이 배겼든지 어떤 건지 기억에 남아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[어머니가] 이 두 얘기를 꺼내요. 이 두 가지 얘기를 끄집어내시는데 아주 난감해요. 다른 사람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오면 내가 막 다른 얘기해갖고 어머님 얘기를 못하시게, 다른 얘기를 막 끄집어내서 판을 흩어버리고 그랬는데. 극복의 의지가 내가 약한, 자랄 때부터 고통을 내면으로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그럼으로써 극복의 의지가 약해졌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. 사실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. 고통스러운 것을 내면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좀 남아있어요. 그래서 정치를 즐겁게 하면서도, 정치를 남달리 힘들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.